

오염된 공기와 음식을 영생의 물질로 바꿀 능력 없으면 영생 못해

음식과 공기에 구세주 얼굴 새기면 영생의 물질로 변해

마음먹기에 따라 이 세상 공기 변해

사람 몸이 안 죽는다는 학설을 논하는 사람들이 미국 TV 방송에 출연하였는데 의사들이 “사람이 어떻게 안 죽느냐? 공기 속에도 독소 물질이 있고 사람이 먹는 음식 속에도 오염된 독소 물질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고, 그 오염된 독소물질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영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해 줬습니다. 사람의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마음의 물질이 사람 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 몸에서는 영생의 물질이 나와 공기 속에 있는 독소 물질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 독소물질이라는 게 마귀의 영이요, 사망의 물질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 공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이 안 죽는다고 주장하려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론의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걸 주장을 하려면 그 반론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 주장하는 영생학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물도 역시 독소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먹는고로 그 음식물에 구세주 얼굴을 새기고 먹으면 그 음식물 속에 있는 독소 물질이 제거됩니다.

예전에 전도관 다녔던 사람들은 돼지고기와 복숭아를 먹기만 하면 입술이 부르트고 배가 아파서 펄펄 뛰는 그런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승리제단) 와서는 복숭아와 돼지

고기를 먹어도 배가 아프지 않은 것은 바로 돼지고기와 복숭아 속에 있는 독소물질을 완전히 소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한번 보면 공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든지, 영국을 간다든지 하면 이 사람의 비행기가 가는 곳의 공기가 변합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

그런고로 이러한 새로운 학설을 논문으로 작성해서 관련 학계에 제출을 한다든지 방송국에 제출하면 이러한 새로운 학설에 대하여 방송을 하려고 기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손바닥을 치면 병이 낫는다. 큰 소리로 찬송을 해도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깡쟁이 마음을 먹으면 깡쟁이 얼굴로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해 줘야 논문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썩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바로 육심을 부리면, 근심 걱정을 하면 기미가 낀다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왜 그런 냄새가 나느냐면 피가 썩어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순간 피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면 이것을 논문으로 써서 세상을 놀라게 해 주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또한 영생의 물질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세주를



구세주 조희성님

바라보는 것이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요, 구세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로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요, 이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으로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미복불은 감로수를 들고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로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감로수를 들고 나오는 자가 생미복불이다.” 하는 말이 불경 열반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고로 감로수는 영생의 물질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강한 생명력의 근원: 이기신 하나님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다 영의 말씀이고요 선악과도 영이요, 생명과일도 영이요, 천국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요, 하늘나라도 영인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이고요 천국 자체가 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 죽지 않는 학설을 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피가 썩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질을 먹어도 피가 썩고, 피를 썩게 하는 마음을 먹어도 피가 썩고, 오염된 공기를 마셔도 피

가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썩게 하는 이 오염된 공기를 만나는 공기로, 이슬의 공기로, 생명의 공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구세주가 6000년 만에 나와서 지금 마귀의 포로 속에서 석방되어 나오는 비결의 학설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 상의 구원론이요, 불경 상의 구원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는데 오늘날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자체가 생명이요, 하나님의 피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능력과 힘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영이 되는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생명의 피를 조금씩, 조금씩 썩히므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만들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 사람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주장하는 대로 마음을 먹으면 피가 썩고, 썩은 피가 오래되면 그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생기고, 썩은 피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암세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피가 있음으로써 동맥경화증 상태로 혈관 속에 기름이 든지 불순물이 끼어서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파열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계속해서 피가 들락날락 하는데 중간에서 딱 막히니까 뻥하고 터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환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늙는 것은, 병이 걸리는 것은 피가 썩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가 썩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피가 썩는 확률이 90%고 사실상 오염된 공기를 마신다든지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피가 썩는 것은 10%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 피가 썩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생활하기만 하면 공기도 변하고, 음식물도 변하는고로 오염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알아 듣기 좋게 새로운 학설을 논하는데 이 학설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의 사람의 몸으로 이루어지면 한 사람의 영생 할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자신을 위해서도 영생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도 내가 죽지 않는 몸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992년 1월 4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질병의 근본적 원인: 스트레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파서 신음하는 것’ 일 것이다. 아파서 괴로운 것은 부모나 의사,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고통 없는 쾌활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질병관리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질병수는 놀라게도 무려 3만 5천에서 5만 종에 이른다. 이중 10%만 현대의학으로 해결되고 나머지는 완전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병원에 넘쳐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로 북적거리는데, 시간 돈 수고로움에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문제 중의 문제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흔히 말할 때,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저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주범이라고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마음)과 반응(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심한 말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경우는 죽은 송장이나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몸에 이로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그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심도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병을 일으키는 사례

어떻게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병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생리적 과학적인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만약 우리 피부 상체에 균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백혈구 중에 과립구라는 것을 상처 부위로 보내 균을 잡는다. 그리고는 과립구 안에 들어 있는 활성산소를 뿌려 균을 죽이고, 그 증거로 고름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몸에 상처가 없는데도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 상처가 났을 때와 똑같이 과립구가 나와 균을 죽일 때 쓰는 활성산소를 우리 몸의 점막에 뿌린다. 그래서 점막에 궤양이나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소화, 흡수 기능을 방해하고 해독 기능을 멈추게

해서 면역 체계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러면 면역세포에 이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불균형, 신진대사장애까지 일어나 급기야 질병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스트레스는 마음으로 스트레스라고 느낄 때 몸에 해로운 독이 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동전에 양면처럼 떼려야

프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음식을 보면 급하게 먹게 된다. 배가 고파서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음식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심에 의해서다. 또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리저리한 일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이다. 세밀히 들여다보면 둘 다 욕심에

스트레스는 질병의 근본원인

욕심과 불편한 마음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의 주요인

부정적 마음으로 피가 산화돼

피의 썩음은 신체의 항상성 파괴

떨 수 없다면 좀더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과 몸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흔히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대체로 우리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진짜 체한 이유는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는다든지 기분이 언짢은데 억지로 음식을 먹었을 때이다. 사람이 배가 고

의해서 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욕심과 마음의 불편함은 스트레스의 주요인이다. 곧 스트레스를 느낌으로 사람의 마음과 몸을 연결시켜주는 피가 갑자기 산화(썩음)되고, 혈관이 수축되게 된다. 그 썩은 피와 좁아진 혈관이 사람의 소화기관(위장)의 모세혈관을 가로막음으로 체증을 느끼는 것이다. 이때 체한 사람의 팔을 쓸어 내려서 엄지손가락을 바늘로 따면

‘검붉은 피’가 나오는데, 이것은 체했기 때문에 피가 썩은 줄로 알았지, 피가 욕심을 부리므로 썩은 줄은 잘 몰랐던 것이다. 이 간단한 사실을 보아도 스트레스(마음의 억압)로 인해서 마음과 몸의 민감한 반응에 대한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치면, 단 한 숟갈을 먹고도 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드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마음으로 받는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 단 한 숟갈을 먹고도 체하는 것이다.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면 피가 썩어

마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을 예사로 한다.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해도 ‘피가 썩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얼굴 혈색이 어둡고 심하면 얼굴에 기미가 끼게 된다. 이것은 불편한 마음 상태에 따라서 피가 탁하여 변질된 상태이다. 이 변질된 썩은 피가 오장육부

의 거울이 되는 얼굴 모세혈관에 시꺼멓게 축적된 현상인 것이다. 얼굴 혈색이 어두운 사람은 평상시 근심 걱정이나 우울한 날을 보내면서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질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3)

피가 변질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피가 산화(酸化)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피의 산화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순간 화를 버럭 낼 때이다. 그 증상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뺨끝이 멍기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화를 냄으로써 피가 순간 급격히 썩어, 얼굴 뺨뺨 심장으로 가는 피와 혈관에 엄청난 압박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다. 피가 썩는다는 것은 곧 신체의 균형과 조화, 즉 항상성의 파괴를 의미한다. 신체의 항상성이 파괴되는 일련의 과정을 열거해보면,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량도 많아진다. 또한 혈액 성분에도 복잡한 변화가 오고, 소화기관의 혈관은 수축되고, 근육의 혈관은 확장된다. 호흡은 얕아지고 빨라지며, 동공이 확대되고, 땀이나 타액의 분비가 증가되는 등 전반적인 생리적 변화가 초래된다. 이것을 보아 격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면 이리저리한 불균형적인 생리적 변화가 지속되어 각종 신체질환, 곧 질병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